



III-1 고대~고려 시대의 문학 [3] 서경별곡

모의 평가 2회 정답 및 해설



정답 및 해설

1 ② 2 ② 3 ⑤ 4 ⑤ 5 ②

1

| 정답 해설 | ‘신잇 그즈리잇가’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후렴구를 사용하였지만, 후렴구는 주제 의식과는 내용상 관련이 없다.
③, ④ 이 글과 연관 없는 내용이다.
⑤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화자 한 명이 말하는 형식이다.

2

| 정답 해설 | ㉠ ‘여 브론 아즐가 ~ 괴시란 우러곰 좇니노 다’에서 화자는 애써 길쌈하던 배를 버려두고 임을 쫓아가겠다고 하였다.

㉡ ‘대동강(大同江) 아즐가 ~ 내여 노 다 샤공야’에서 사공은 대동강에 배를 띄워 놓고 있다.

㉢ ‘널 예 아즐가 / 널 예 연즌다 샤공야’서 사공은 임을 빈 배에 태우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㉣ ‘구스리 아즐가 ~ 긴히트 그즈리 가 나 ’에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였다.

㉤ ‘대동강(大同江) 건넌편 고즐여 ~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 ’에서 임이 강 건너에서 꽃을 꺾을까 봐 염려하고 있으므로 이는 연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.

3

| 정답 해설 | ‘그즈리잇가’는 ‘끊어지겠습니까(끊어질 리가 없다)’로 해석할 수 있다.

4

| 정답 해설 | 이 글의 주된 분위기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정한이다. 그러나 ‘가시리’ 등 이별을 수용하는 전통적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작품과 달리 길쌈배를 버려두고 임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등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.
② 떠난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.
③ 화자는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.
④ ‘서경이 아즐가/서경이/서울히 마르느’와 같이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.

5

| 정답 해설 | ㉠은 임이 그곳을 건너 다른 곳으로 가면서 화자와 멀어지게 되고, ㉡은 임이 그곳에 빠져 죽으면서 화자와 이별하게 되는 단절의 기능을 하고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㉠과 ㉡은 임과 화자의 재회를 방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.
③ ㉠과 ㉡은 임이 화자를 떠나게 되는 계기와는 관계가 없다.
④ ㉠과 ㉡은 화자가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와는 관련이 없다.
⑤ 임이 화자를 떠나는 상황이므로 ㉠과 ㉡이 임이 화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